

민주 “폭주 권력 바로 잡겠다” 대여 투쟁 강화 의지 다져

1박2일 워크숍 마무리...이탈 지지층 복원·중도 확장 공감대 채상병 수사 외압 규명 등 '1특검 4국조 등 8대 과제'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간의 정기국회 및 총선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강력한 대여 투쟁 의지를 다지는 한편,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이탈된 지지층 복원과 중도 확장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쓴소리도 일부 제기되기도 했으나 당초 우려했던 계파 갈등 양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워크숍 마지막 날 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비참할

춥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질규하는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드리자”고 강조했다.

박광은 원내대표는 “상임위 활동과 국정감사, 예산 심의에서 ‘타임플레이’를 통해 집중력을 강화, 민주당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겠구나”하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에서 의원들 간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8대 과제’를 담은 결의문도 발표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을 채우고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과제와 관련해서 우선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 사유화 및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면서 ‘1특검·4국조’ 결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1특검·4국조’는 해병대 체모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방송 장악·새만금 쟁반리 파행·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다. 또 “정치 윤리와 정치 문화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서

당내 혁신도 결의했다.

이밖에 ▲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주권 보호 ▲ ‘묻지마’ 흉악 범죄·여성 혐오 범죄·자연 재해 등 사회적 재난·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및 ‘사람 중심 예산안·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 혁신 성장을 통한 저성장 경기 침체 위기 극복 ▲ 국의 기반 균형·실리 외교 및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 ▲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 정당 원내 진입 뒷받침 등의 선거제도 개혁 등도 추진과제에 올랐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과 만나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을 당 지지층과 연결하는 과제를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표 취임 1주년에 열린 이번 워크숍은 비교적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당 내외에서는 이번 워크숍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및 김은경 혁신안 등을 놓고 계파 갈등 양상이 표출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체포동의안 문제 등을 거론했지만 별다른 반향을 끌지는 못했다. 김은경 혁신안은 추후에 논의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당초 우려했던 당내 갈등이 표출되지 보다는 내년 총선 관련 진단을 하고 당을 아우르는 논의 위주로 진행됐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뜨거운 감자’ 이기는 하지만 일단 당내 전열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독립영웅 흉상 철거 중단하라” 29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열린 국방부의 항일 독립전쟁 영웅들의 흉상 철거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가열

경술국치 113주년...당·정-독립운동 단체 대립

일제가 국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113주년인 29일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육사 출신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 휘하 군당국자들과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의 의원, 육사 총동창회 등은 홍 장군이 소련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어 육사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독립운동 단체들은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가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 설치된 독립운동 영웅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다 논란이 커지자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겠다”며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군이 국가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때아닌 이념논쟁에 뛰어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27일 이종섭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檢 ‘라임환매 사태’ 김봉현에 항소심서 40년 구형

도주·탈옥 계획 반영...10년 추가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검찰은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

해 역을했다고 호소하면서도 속으로는 탈옥을 계획했다”며 “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구체적인 탈옥계획서를 근거로 실형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추궁했으나 김 전 회장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

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사용한 사람은 따로 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한두 단계만 더 추적했다면 이 자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명명백백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회삐돈을 쓴 적 없으므로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만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해 드러났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연합뉴스

금감원, 펀드 판매사도 재검사

‘라임 특혜 환매’ 관련 미래에셋 검사...판매사 전반 확대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 3대 펀드 운용사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판매사에도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김상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자들에게 환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 펀드를 환매한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라며 “이미 다른 이슈(채권형 례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 점검)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검사 항목을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

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고유 자금과 펀드 둘러막기 등을 통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알려진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먼저 환매를 권유한 데 따른 조치였고 해당 펀드 가입자 16명이 모두 환매를 받았다며 금감원 발표에 반발했다.

‘특혜성 환매’를 두고 금감원과 김 의원 간 공방이 확산하자,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환매 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이 김 의원이 가입한 펀드 이외에도 이 같은 환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 라임자산운용 등과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에도 검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